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을 찾은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 선수가 김용서 수원시청장에 취임 축하 사인본을 건네고 있다.

“프랑스전 골, 지성이도 놀랐대요”

박지성 부친 수원시청 방문때 밝혀

독일월드컵 경기를 마치고 귀국한 뒤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6일 오전 11시 아버지 박성중씨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 김용서 수원시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 선수의 방문은 수원 출신인 데다 오래 전부터 김 시장과 인연을 맺어온 터여서 조만간 영적으로 출국하기 앞서 김 시장의 시장 재임을 축하하려고 갑작스럽게 마련됐다.

김 시장과 박 선수 부자는 독일월드컵 예선 프랑스전에서 박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김 시장이 “그거 보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라고 말하자 박 선수의 아버지는 “만세하고 나니가 손목시계가 날아가고 없어졌다”고 운을 뗐다. “(지성이) 골 넣을 당시 (프랑스) 수비수도 놀랐고, 골키퍼도 놀랐고, 재(박지성)도 놀랐대요”고 말했다.

이에 박 선수는 당시 상황이 생각나는 듯 특유의 미소를 지어보였다. 박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계약이 3년 남았고 오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영국으로) 출국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버디·이글 때마다 사랑의 자선기금’

美 골퍼 미켈슨 재단 설립



필 앤드 에이미 미켈슨 자선 재단' 기금은 미켈슨이 버디를 잡을 때마다 100달러, 그리고 이글에는 500달러씩을 내놓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필 미켈슨(미국)이 자선기금 재단을 설립했다. 6일(한국시간) 미켈슨은 아내 에이미와 자신의 이름을 함께 집어넣은 ‘필 앤드 에이미 미켈슨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이날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일리스 웨스턴오픈부터 기금 적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필 앤드 에이미 미켈슨 자선 재단’ 기금은 미켈슨이 버디를 잡을 때마다 100달러, 그리고 이글에는 500달러씩을 내놓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이기우 前교육부차관

재능대학 5대 학장에



이기우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학교 법인 재능학원 재능대학 제 5대 학장으로 선임됐다. 이 신임 학장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임명됐었다.

총장로 로타리클럽

최경철 회장 취임



최경철 국제 로타리 3710지구 광주 총장 로타리 클럽 회장은 6일 취임식을 가졌다. ▲유두석씨(장성군수)

대한치과기공사協 학술대회 준비하는 고 흥 광주시 치과기공사회장

“문화행사 도입, 광주 위상 높ی겠다”

“광주에 전국 14개 시도·6천명의 치과기공사들이 찾아오는데 한꺼번에 목을 축소가 없더군요” 6일 광주광역시 치과기공사회 고흥(47) 회장의 말이다.

‘컨벤션’ 컨셉 중심 시스템 끌어 오려

그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2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학술대회를 위해 1년 동안 바쁘게 움직였다. 광주지회에서 처음 준비하는 전국 행사인데 6천명이라는 치과 기공사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행사 투입 예산만 6억원에 이른다. 고 회장은 특히 “회원들이 목을 축소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6천명에 가까운 회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은 아예 없었고, 그나마 한 개 건물을 통째로 내주는 숙박업체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김대중센터 인근 모텔에 10~15명씩 객실을 풀도록 했다. 그 모텔 수만 416개나 된다. 고 회장은 “이번 대회 준비로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호텔 건립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또 “광주에 전국 규모의 ‘컨벤션’을 위한 윈-스톱 시스템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전국 규모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행사 진행을 돕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숙박·식사·홍보·방문객 관광 등을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 이번 행사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지방 학술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로, 협회에서는 이번 대회의 부가가치가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지방 학술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로, 협회에서는 이번 대회의 부가가치가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가가치 16억...시민 건강검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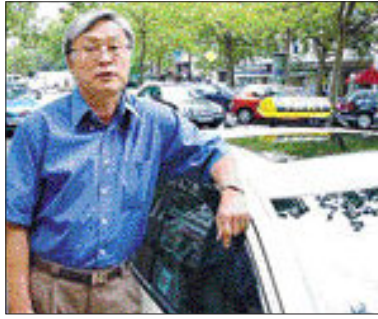
고 회장은 “무거운 주제의 학술대회로만 끝났던 그런 동안의 행사와 차별을 꾀해 문화 행사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이미지에 걸맞게 학술대회 42년 역사상 처음으로 광주의 창작국악 실내악단 ‘도드락’을 비롯해 살풀이, 설장고, 난타 등 전통 국악 공연 등을 마련한 것이다. 고 회장은 “8일~9일 제2전시관에서는 이 지역 농·수산물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로비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건강검진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기자 viola@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연 등을 마련한 것이다. 고 회장은 “8일~9일 제2전시관에서는 이 지역 농·수산물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로비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건강검진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기자 viola@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베를린서 택시 운전하는 ‘대통령 외손자’

윤보선 전대통령 외손 신중수씨, 6·25때 집안 몰락



김형됐다. 부친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10년 가까운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집안은 좀비박산이 난 뒤였다. 모든 친척과 지인들도 멀어졌다. 특히 윤보선과 박정희 간의 대통령 선거전 당시, 윤보선 측이 박정희의 좌파 전력(前歷)을 제기하자 박정희 측이 “그쪽 사위는 어떤가”라고 되반했다고 한다.

派獨 광부 자원 한국 땅 떠...부귀영화 부러지지 않아

“집안 얘기를 하는 것이 속스럽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안 내력이 상관 없이 남에게 손 안뻗히고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베를린에서 26년째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 신중수(61)씨는 내로라하는 명문가의 후예다.

그는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의 장손이다. 동시에 윤보선 전 대통령의 외손자다. 말하자면 신규식 선생의 장남과 윤보선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이 결혼해 낳은 맏아들이다. 그는 이 양대 명문가를 친가와 외가로 두고 있다. 그런 그가 1971년 파독(派獨) 광부

의 명단에 끼여 있었다. 석탄 캐는 일과 전혀 무관한 삶이었지만 그는 집안 몰락 파독 광부를 지원해 한국 땅을 훌쩍 떠나와 버린 것이다. 신씨는 “당시 한국에 남아서 제갈 일이 없어 어디로든지 떠나야 했다”면서 “집안은 이미 몰락했고 소위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광부든 뭐든 상관 없었는데, 마침 사귀던 여인(지금의 부인)이 ‘파독 간호사로 3년간 떠나자. 말하자면 신규식 선생의 장남과 윤보선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이 결혼해 낳은 맏아들이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의 집안 몰락은 6·25 전후의 좌우의 대결로 인한 것이다. 부친은 부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뒤 부귀로

“남들도 할 수 있는 일... 꼭스럽네요”

지하철역서 어린이 구한 우리은행 미국민 차장



“반사적으로 한 일인데 발송을 본 동료들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알려져 꼭스럽습니다.” 최근 지하철 선로에 빠진 6살 어린이를 구한 우리은행 외환서비스센터의 미국민 차장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4일 저녁 8시2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퇴근을 위해 전동차를 기다리다 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보자 6살 여아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에 빠져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씨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전동차 운전석 쪽을 향해 신호를 보내려 했으나, 선로가 심하게 구부러져 있어 운전석 쪽이

보이지 않았다. 어쩔 줄 모른 채 바라만 보고 있던 주위 사람들께 운전석 쪽으로 가서 전동차의 출발을 막도록 요구한 이씨는 발차 여부를 확인할 틈도 없이 곧바로 몸을 구부려 아이를 구해냈다. 이씨는 “전동차가 막 출발하려 했으나, 당황한 아기가 선로 안쪽에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알고선로 위로 올라 오려고만 해 위험한만한 상황이었다”며 “예를 구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금,보육원 골프단 위해 써 주세요”



국내 중·고등학생 골프대 중학생 골퍼 김민환군

회에 출전한 중학생 골퍼가 자신이 받은 상금명목의 장학금 전액을 보육원 골프단에 기증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의 프라자 CC에서 막을 내린 제3회 경기일보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에서 남중부 3위를 차지한 김민환(14·수원 신성중2년)군은 시상식에서 장학금으로 받은 100만원을 충북 옥천의 팔월루아 보육원 골프단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김군은 아마추어 골프선수는 골프대회에서 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상금대신 장학금을 받았다.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인 김군은 공동선수로 출발한 마지막 날 경기에서 막판에 OB 벌타로 아슬게도 1등에 1타 차 뒤진 공동 3위에 그쳤다.

‘중국어 신동’ 하얼빈시 경연대회 2위

9세 유학생 김민주양



5일 오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 교원 회관에서 하얼빈시 교육국 주최로 열린 한국유학생 중국어 경연대회에서는 올해 9살인 김민주양이 스무 살이 넘는 대학생 언니와 오빠를 물리치고 당당히 2등을 차지해 관심을 모았다.

더욱 놀라운 점은 김양이 이곳 하얼빈 조선족소학교로 유학을 온 지 불과 10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김양은 부모와 떨어져 6살난 동생 민혜양을 데리고 한 조선족 동포의 가정에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김양이 “나는 하얼빈을 사랑해요(我愛哈爾濱)”를 주제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작년 10월에야 처음 중국어 발을 들여놓은 한국 어린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 ▲조원래(순천대 교수)씨 장남 창룡군 류진수씨 장녀 은희양=8일(토) 오후 3시 서울 고려대 교우회관 1층.
- ▲김영진(광주시 건설국장)씨 장남 대호군 강덕현씨 차녀 세진양=8일(토) 낮 12시 오페라하우스 1층.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일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 ▲비틀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

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동창·동문회

- ▲복성중 제 7회 동창회(회장 김권수) 월례회=7일(금) 오후 7시 금강산. 224-0808
- ▲광주대 토목공학과 동문회 정기모임=7일(금) 오후 7시 모교 옆 남구보신당(오리전골). 674-1834
- ▲조대부고 31회 동창회(회장 정병래) 모임=8일(토) 오후 7시 낙지 한마리 수제비.376-2247
- ▲복성중 제 9회 동창회(회장 장

무성) 월례회=9일(일) 오후 6시30분 해태사당. 525-7393
▲송원고 총동창회 기별회장단 월례회=10일(월) 오후 7시 풍암동 녹차 먹이 오리.010-7212-0085
▲재광 전주 영생고 총동문회(회장 배기영) 모임=11일(화) 오후 7시 장어한마리.371-9230
▲복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2일(수) 오후 7시 나누기당.
▲광상 32회(일지모) 동창회=14일(금) 오후 8시 아마가 참치회집. 011-9609-0055

중친회

- ▲연양김씨 광주시 중친회(회장 김남진) 월례회=7일(금) 오후 6시 30분 명덕회관.
- ▲고씨 광주중친회(회장 고석태) 정기이사회=7일(금) 오후 7시 제

일오피스텔 19층.234-5666
▲영광김씨 재광중친회(회장 김인규) 월례회=13일(목) 오후 7시 백운산회관. 019-9773-7128

모집

- ▲화형장사 국비교육생 모집=만 40세이상, 매월 11만원 수당 지급. 문의 (재)연세직업전문학교 264-4300.4305
- ▲광주시 건설산업노조 기능학교 학생모집=건설 노동자 대상으로 8일 오후 3시까지 접수. 모집 인원 20명. 문의 062-524-8883
- ▲광주 남구시니어클럽 시험감독관 모집=교직·공무원으로 퇴직한 60세 이상으로 모집 인원은 30명. 062-351-5070. 654-6080
-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업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과정·뇌병변 특

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 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극단 청춘 회원 및 단원 모집='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창작극 활성화를 위한 특별 기획 공연 등 자기 작품 참여자 모집. 20세 이상으로 배우·기획·연출 분야. 9일까지. 문의 430-5257.

부음

-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건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오피션·커피·커피·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족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층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부음

▲조선일씨 별세 오종영·연숙·연희·선희·혜원·하나씨 모친상 김정

홍·김선진·조원철·김정환·조국천씨 빈모상=발인 8일(토)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윤병수씨 별세 효중·희중·대중·경순·경남·경덕·경화씨 부친상 한경호·신승일씨 방부상=발인 8일(토)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250-4412

▲김인식(광주드림 영입지원팀장)씨 별세 춘식·유석씨 백형상=발인 8일(토) 상무병원 장례식장. 600-7400

▲장순안씨 별세 양동석(조선대 법과대학장)·동운·동희씨 모친상 문화옥씨 빈모상=발인 8일(토) 오전 8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011-9610-4871,016-617-6756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남골프특별분양
시공 (062) 521-1100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호진)
대표: (062) 515-4488